



송수남 '산수'

오무균 '갯벌·휴'

김학수 '줄포항구'

▶ 전북도립미술관 신년 기획전

천년, 흐르는 물

정주하 '서쪽바다'



곽동영 '김제 만경강, 생명의 터전'

끝없이 펼쳐진 곡창지대와 수려한 산세, 그리고 드넓은 남서해안의 갯벌이 있는 전라도. 특히 전북은 섬진강·만경강 등 5대 강의 발원지로 여는 지역보다 풍부한 물길을 가졌다. 이러한 자연적 풍요로움으로 인해 전북은 예부터 맛과 멋·풍류가 넘쳤을 뿐더러 그에 따른 안목도 남달라 그 명맥을 수년 간 이어왔다.

전북도립미술관(관장 김은영)에서는 '천년, 흐르는 물' 신년 기획전을 개최한다. 전라도 정명(定名) 천년을 맞아 마련된 이번 전시는 미술관 소장품 중심으로 구성됐다. 자연주의적 서정성을 담은 한국화, 서양화, 사진 등 26점을 선보인다.

이들 전시작 중 김범석(1964~) 작가의 '모악별곡'은 도립미술관 개관전 '염피·모악 전의 출품작. 작품은 7m에 달하는 대작으로, 작가는 모악산의 큰 흐름을 파악하고자 직접 모악산 정상에 올라 유년

시절을 보낸 김제 들녘의 풍광을 바라보며 작품을 완성했다고 한다.

정주하(1958~) 작가는 성장과정에서 각별한 애정이 담긴 '서쪽바다'를 통해, 평화롭고 한없이 포용하는 자연과 인간적인 삶의 흔적을 보여준다.

갯벌의 다양한 풍광을 담은 오무균(1951~) 작가의 '갯벌·휴'는 구체적 형태가 없는 이른바 '올 오버(all-over) 페인팅 형식'을 취한다. 전체가 있어도 그림이 되고 조각을 내도 갯벌의 형상이 되는 독특한 방식으로 완성해낸 작품이다.

박남재(1929~) 작가는 격포 바다의 파도치는 풍경을 대담한 화필과 과감한 생략을 통해 묘사한다. '격포의 파도'는 작가가 추구하는 자연의 궁극적인 정신성과 장엄성 및 불변성을 특유의 표현기법으로 조형화하고 있는 작품이다.

송수남(1938~2013) 작가의 '산수'는 수평구도를 바탕으로, 검은 선들과 하얀 여

백이 어우러지는 간결하고 독창적인 산수의 형태를 표현했다. 형상에 의지하거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종이와 붓, 먹이라는 단순한 재료로 원초적인 조형미를 강하게 나타내고 있다.

이기홍(1959~) 작가의 '바람·대숲'은 200호가 넘는 캔버스에 대숲의 바람 이미지를 시원하게 담았다.

지용출(1963~2010) 작가의 '갯벌'은 부인의 해안과 갯벌 풍경을 배경으로 한다. 작품은 비탄한 바다 냄새와 고된 어민들의

의 일상을 그려내며 시대에 반응하고자 했던 작가의 움직임이 엿볼 수 있다.

김학수(1933~) 작가의 '줄포항구'는 고향의 옛 풍경이 점차적으로 사라져가기 시작한 1960~70년대 이후 농어촌의 광범한 일상을 흑백사진으로 담은 작품이다.

곽동영(1967~) 작가의 '김제 만경강, 생명의 터전...'은 전라도 곳곳을 드론으로 촬영한 항공사진들, 작품에선 주변에 흔한 소재에서 미처 발견하지 못한 색깔들의 다양성과 자연과 조화를 이루는 작가의 독특한 시각을 만날 수 있다.

미술관 관계자는 "이번 전시 '천년, 흐르는 물'은 변화를 말한다"며 "여기에는 은근과 끈기로 완곡한 변화를 즐기는 전라인의 온화한 성품이 녹아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전라미술은 흐르는 물처럼 상생하는 변화의 힘이 있다"고 밝혔다.

전시는 전북도립미술관 서울관에서 3일부터 22일까지. /정해은 기자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1월 첫째 주 개봉작 공개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기억

-원더풀 라이프-



한 영화에 실제 인물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독특한 형식을 취한다.

이를 위해 감독은 약 6개월 동안 양로원·거리·회사·대학 캠퍼스 등에 찾아가 시민들과 인터뷰를 진행했다. 인터뷰에 응했던 시민 중 10여 명이 본인 역으로 영화에 출연, 자신의 추억을 이야기한다.

작품은 당시 연기 경험이 전무했던 이우라 아티타, 이세야 유스케 그리고 신인 배우 오 다 에리카가 주연을 맡은 작품으로 그들의 뜻밖의 모습도 함께할 수 있다.

또 다른 영화 '굿타임'은 떠오르는 신예 형제 감독 조쉬 사프디와 베니 사프디의 작품. 영화는 뉴욕에서 함께 여행을 떠난 불잡힌 동생을 구하기 위한 형 코니의 하룻밤 동안의 광란의 질주를 다룬다.

작품은 관객들에게 강렬함과 긴장감을 전한

동생을 위한 광란의 질주

-굿타임-



다. 특히 형 '코니'역을 맡은 로버트 패튼은 그동안의 이미지와는 다른 모습으로 충격적이면서 광기에 가까운 연기를 선보이며 극찬을 받기도 했다.

영화는 제70회 칸영화제에서 첫 선을 보이며 호평을 얻었다. 카이에 뒤 시네마, 필름 코멘트, 인디와이어와 같은 영화 비평매체의 '2017년 올해의 영화 목록'에 오르기도 했다. /정해은 기자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 공개 모집

문화재청 국립무형유산원(원장 조현중)은 미래 세대가 전통문화로 쉽게 진입하고 쉽고 우수한 전승자를 양성하기 위해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학교 교육을 연계한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사업'을 공개모집 한다.

무형문화재 전수교육학교 지원은 국립국악고등학교와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 한국전통문화대학교 중 신청한 학교를 대상으로 심의를 거쳐 전수교육학교로 선정해 지원하는 사업. 선정된 학교에서 교육을 수료하면 무형문화재 이수심

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얻는다.

지원사업의 총 사업기간은 3년으로, 대학은 국가무형문화재 1개 종목에 대해 3개 학년 총 21학점 이상, 고등학교는 3개 학년 총 38단위 이상을 전수교육과정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해당 교과목을 편성해야 한다.

지원을 희망하는 학교는 오는 29일까지 선정 신청서를 문화재청 누리집(www.cha.go.kr) 또는 국립무형유산원 누리집(www.nihc.go.kr)에서 내려받아 작성해 국립무형유산원에 우편 또는 방문 제출하면 된다. /정해은 기자

전북 문인협회 '문맥' 제49호 발간

(사)한국문인협회 전주지부(회장 이소애)의 회원지 '문맥' 제49호가 발간됐다.

전주의 풍경과 상징물을 주제로 풀어낸 '전주를 노래하다'와 전주문화상 수상작이 실렸다.

고미희 작가의 '모주에 대하여'를 비롯해 박영택 작가의 '박거리' 박일진 작가의 '전주

천 가는 길' 등 15명 작가의 작품과, 제5회 전주문화상 수상작 안평묵의 '소나기'와 이희근의 '깨소금 여인' 등이 수록됐다.

이소애 회장은 "협회는 전주를 찾는 수많은 여행객들에게 전주의 풍경을 시화전으로 홍보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펼쳐 이번 호의 결실을 맺었다"면서 "그래서 책의 표지는 전주를 상징하는 사진으로 장식했다"고 말했다. /정해은 기자

하이트진로

2018

새해에도 더 맛있게
EXTRA COLD

ICE POINT FILTRATION SYSTEM

광고: 지나친 음주는 비알콜성 기아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임신 중 음주는 기아에 영양을 공급합니다.